

李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계엄 1년 맞아 특별 성명 발표
“입법부가 권한 잘 행사할 것”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힘 실어
2차 특검엔 “이 상태론 못 덮어”
12월 3일 법정 공휴일 추진도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을 맞은 3일,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
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친위 쿠데
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
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
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
리를 공언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
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
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가동하
는 데 대해서도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아말
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
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하
는 방안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정청래 대표
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라며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
서는 ‘내란 청산’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는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상 공세의 대상이 될 국민의힘은 이
날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
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
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안
철수 의원 등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
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기사 A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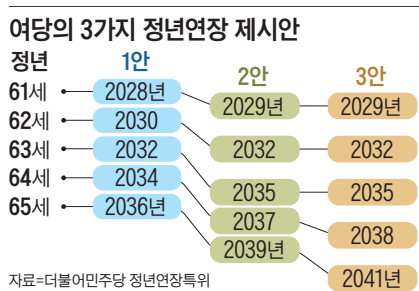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한민국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민주당, 노사에 3가지 방안 제시
10년 간 늘려 2039년 65세로 연장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도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
기 시작해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
까지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3가지 복수
안을 노사(勞使)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
됐다. 여당은 이 가운데서 조만간 최종
안을 확정할 뒤 올해 안에 입법 절차 진
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정년 연장 논의 기구인 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
행했다고 한다. 이 특위에는 노동계를 대
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
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
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①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
으로 1년씩 연장 ②2029년부터 2039년까
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③2029년부
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 3
가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첫째 안은 경
영계에서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셋째 안은 노동계에서
“65세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
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에 여권 안팎에선 둘째 안의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

장하되, 경영계가 주장해 온 ‘퇴직 후
재고용’을 1~2년 허용하기로 했다. 둘
째 안이 채택되면 정년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업에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년이 63세가 되는
2035년에는 재고용을 65세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3가지
안 모두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전에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
로 시작할 수 있게 구성됐다”며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이 달라지
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내 당 차원의 최종 공
식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는 등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
련 상임위 법안 심사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年内)보다는 내
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아사 기자 A12면에 계속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법원 “법리에 다툼의 여지 있어”
與 “조희대 사법부 심판 받을 것”



의 필요성을 주장했
지만, 법원은 받아들
이지 않았다. 이에 대
해 특검 관계자는 “법
원의 결정은 존중하
지만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에 가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
한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
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법
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
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
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위헌 정당’으로 몰리던 국민의힘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
결을 못 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내란 중
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 국민의힘 의
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구속

며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 수사가 필
요하지 않다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재
청구나 보강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
속 기소할 방침이다.

추 의원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
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정
당 해산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청산
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
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
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
명 정권의 내란 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
이 걸렸다”고 했다.

박해민·김상윤 기자 기사 A3면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지방시대위, 소득 변화 분석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몰려
“지역 거점도시 집중 육성해야”

수도권 외 지역 청년들이 높은 주거
비·생활비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권으로 일터를 옮기는 이유는 그래도
벌이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라는 조
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와 지
방시대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청년
인구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 분석’ 보
고서를 내며,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해
결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비수
도권 거점 도시 5곳을 집중적으로 키워
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엔 비수도
권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일하
다가 2023년 수도권으로 일터를 옮긴

15~39세 청년의 2023년 평균 소득은
2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
보다 22.8% 증가했다. 소득 증가세가 2
년 동안 줄곧 비수도권에서 일했던 청
년(12.1%)의 거의 2배다. 비수도권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광역
시·전남, 충청권(충북·충남·세종) 등 4
개 지역을 뜻한다. 일자리 이동이 적은
강원·전북·제주는 빼고 조사했다.

정석우 기자 A2면에 계속

八面鋒

12·3 계엄 1년, ‘내란 청산’ 아직 멀었
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사골도 이 정
도로 우리한테 맛 없다는 말 나올텐데.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불
구속 기소하기로. “국힘 해산” 외치
는 누군가 눈치 본 건 아니겠지?

러 간첩, 요즘 ‘알바’ 모집해 텔레그램
으로 공작 지시하고 대가는 코인으로
준다고. 간첩집도 서류 따라 진화.



美 원전 부활의 현상
스리마일섬 르포 A8

서울대병원 의사, 간호사 전용 오피스텔 분양

서울대병원배곧 with 프라이م센터

2만명 상주
지금 이곳이 진짜 금맥!!

의사·간호사·환자·바이오연구원

배곧대교(예정)

임대 확정

주택수 미포함

서울대병원 앞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

돈이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

바로 이곳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왔다

서울대병원

14.2평 (1.5룸)

1층 9.58평
복층 4.62평

프리미엄 오션뷰, 공원뷰
분양가 1억 6000만원~

서울대병원 최첨단 AI 개막시대 시작
프라이م센터는 서울대병원과 함께합니다.

시흥 신한자산신탁
시흥 DOOJIN 주·도·전·경·성

대표 번호

1688-4626